

찬스 때마다 결정타... 득점권 타율 NO.1

NC 박민우 0.447... 맞수없는 독주
2020년 LG 김현수 기록 넘어서
주자 2루 이상 있을 때 힘 '펼 펼'
단순한 안타 아닌 장타가 더 많아
'역대 최고 해결사' 신기록 쓸 수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주장 박민우(32)는 19일 현재 시즌 타율 0.298로 타격 순위 14위를 달린다.



박민우가 리그를 대표하는 교타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썩 좋은 성적은 아니다.

2013년 KBO리그에 데뷔한 박민우는 통산 타율 0.319를 기록했고 2023년과 2024년엔 모두 3할 타율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박민우의 세부 지표를 확인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는 올 시즌 데뷔 후 역대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박민우는 주자가 2루 이상 있을 때의 타율인 득점권 타율 1위를 달린다.

득점권에서 들어간 126타석에서 안타 45개, 볼넷 16개, 고의4구 5개, 사구 1개를 기록했다.

득점권 타율은 무려 0.447에 달한다. 이 부문 2위 LG 트윈스 신민재(0.426)를 크게 앞선다.

박민우의 득점권 타율은 역대 기록을 찾아봐도 손에 꼽힐 만큼 높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득점권 타율 기록을 집계한 2001년 이후 규정 타석을 채운 득점권 타율 1위는 2020년 LG 김현수(0.446)다.

박민우는 올 시즌 남은 성적에 따라 KBO 집계 이후 단일 시즌 득점권 타율 전체 1위 신기록도 쓸 수 있다.

2020년 KBO리그는 리그 평균 타율이 0.273에 달할 정도로 타고투저 현상이 심했다.

올 시즌에는 투고타저 현상이 두드러져 리그 평균 타율은 0.259로 푹 떨어졌다.

박민우는 이처럼 달라진 환경의 불리함을 딛고 역대 최고 기록을 쓸 태세다.

박민우가 득점권에서 날리는 안타의 질도 매우 좋다.



4월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9회초 1사 2루 NC 박민우가 1타점 적시타를 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순히 안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2루타 이상의 장타를 많이 때린다.

박민우의 득점권 장타율은 0.716으로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중 유일하게 7할 이상을 찍고 있다.

득점권 타율 2위 신민재의 득점권 장타율(0.443)보다 0.273이 높다. 어마어마한 기록이다.

박민우의 득점권 기록은 타순 변화 속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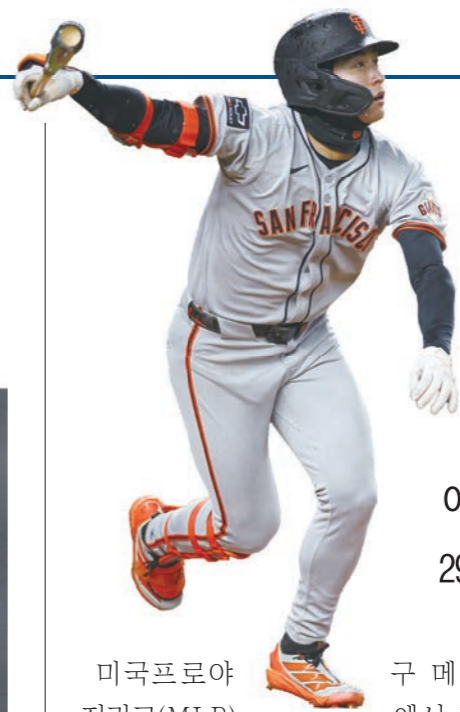
그는 지난 시즌까지 주로 1번 타자로 활약했다.

발이 빠른 박민우는 출루에 초점을 맞추는 1번 타자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나 올 시즌 부임한 이호준 NC 감독은 박민우의 클러치 능력에 주목했다.

발이 빠른 박민우를 중심 타순에 배치하면 타점 기회에서 병살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판단했다.

이호준 감독의 판단은 적중했다. 시즌 초반 1번과 3번 타자 역할을 병행한 박민우는 6월 6일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고정 3번 타자로 나섰다.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클러치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스키아데일리 연합뉴스



홈런 + 2루타 생일 자축쇼

이정후, 샌디에이고전 시즌 7호포
29호 2루타도 더했지만 팀은 1-5 패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사진)가 27번째 생일을 맞아 시즌 7호 자축포를 쳤다.

이정후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정후는 샌디에이고 선발 니 피베타의 2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비거리는 400피트(약 122m)로, MLB 30개 구장 가운데 24곳에서 홈런이 났을 타구였다.

물론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인 '차타자의 무덤' 오라클파크는 '홈런이 안 났을 6곳'에 포함됐다.



이정후의 홈런은 5월15일 애리조나 다이나모스전 이후 97일 만이다.

또한 올 시즌 최다 타이거 기록인 8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 갔다.

여기에 이정후는 장타를 하나 더 추가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그는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피베타의 한복관 실투를 놓치지 않고 중견수 쪽 2루타를 날렸다. 올 시즌 29번째 2루타다.

이정후가 한 경기에서 멀티 홈런(한 경기 장타 2개 이상)을 터뜨린 건 지난달 3일 애리조나전 이후 48일 만이다.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62로 상승했고, OPS(출루율+장타율)는 0.742가 됐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이고에 1-5로 패했다.

손흥민 다음 황희찬? C팰리스 이적설 솔솔



간판 공격수 손흥민(LAFC)을 떠나 보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며 구단들의 영입 경쟁에 불을 지핀 가운데 황희찬(울버햄프턴 사진)의 이적설도 불거지고 있다.

20일(한국시간) 영국 더선은 "올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EPL 크리스털 팰리스가 황희찬을 한 시즌 임대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크리스털 팰리스는 토트넘으로부터 선수 영입 제안을 받고 공격형 미드필더 에베리치 에제의 이적을 논의 중이다. 에제는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공격을 이끄는 플레이메이커로 뛰었으며, 손흥민

의 공백을 메울 자원으로 토트넘의 주목을 받았다.

주요 공격수를 대체할 이적생을 찾아 나선 크리스털 팰리스는 황희찬에게 눈길을 돌렸다.

황희찬은 2023-24시즌 공식전 13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리며 활약했지만 최근 기량이 꺾인 모습으로 팀 내 입지가 줄어들었다.

지난 시즌에는 잦은 부상으로 25경기에만 출전했고, 성적도 2골 1도움에 그쳤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황희찬을 비롯해 레스터 시티의 빌랄 엘카누스, 클리프 비워히의 크리스토퍼 홀리스 등을 영입 후보군에 올려놨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